

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, 청년농 의견수렴

✎ 문찬식 기자 | © 승인 2025.03.10 14:00



한국농어촌공사

한국농어촌공사 로고

(인천=국제뉴스) 문찬식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가 10일 회의실에서 '청년 농 소통협의체 간담회'를 개최,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.

이날 간담회는 강화군의 청년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, 청년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

이와 함께 안정적 영농 정착 유인을 위한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마련됐다. 강화옹진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47 농가에 575필지 264ha를 지원하며 청년 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올해는 농지지원 예산을 확대,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

양희충 지사장은 "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"며 "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

문찬식 기자 mcs0234@hanmail.net